

## 형용사의 장형 부정 선호 현상의 동기\*

정연주

(고려대학교)

### <abstract>

**Jeong Yeonju. 2017. The Motivations of Preference for Long-form Negation of Adjectives. *Korean Semantics*, 57.**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Korean adjectives prefer the long-form negation to the short one. The investigation suggests: 1) Adjectives go well with degree adverbs. When negated, a degree adverb causes semantic ambiguity. There is context where long-form negation should be adopted to include the degree adverb in question under the negation scope. 2) Usually an adjective expresses the speaker's subjective assess on someone or something, and subjective assess always implies conflicts with others' evaluation. As the speaker's intention of negation tends to be less clear and gentle in long-form negation, generally Korean speakers prefer using long-form negation to using short-form negation with adjectives. 3) In many cases an adjective has its counterpart, an antonym on the semantic scale, and it is posited that they are located on the ends of this scale; one on an end and the other on the other end. If one desires to point between the two extremes, s/he should negate both of them. Here the speaker uses long-form negation with the enclitic(bojosa) *do*. 4) Of adjectives, there are a few with an antonym without scalar, a pair of complementary opposite. When one of the pair negated in short form, the derived meaning is identical to the antonym's. That's why the

---

\* 논의를 다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분 심사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246)

existence of complementary opposites blocks the use of short-form negation in adjectives. On the other hand when it comes to long-form negation, its wider scope and hedging the intention of negation excludes the possibility of blocking.

핵심어: 장형 부정(long form negation), 단형 부정(short form negation), 제약(constraint), 형용사(adjective), 동사(verb), 작용역(scope), 완곡어법(euphemism), 정도부사(degree adverb), 상보반의어(complementary antonyms), 저지(blocking)

## 1. 서론

한국어의 대표적인 부정법은 ‘안’ 계열 부정법인데, 여기에는 부정부사 ‘안’과 부정 보조용언 구성인 ‘-지 않-’,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 부정문에서 부정부사 ‘안’이 쓰이는 경우를 흔히 단형 부정이라고 부르고, 부정 보조용언 구성 ‘-지 않-’이 쓰이는 경우를 흔히 장형 부정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장형 부정에 비해 단형 부정 형식이 분포에서 제약을 보인다는 사실이 널리 언급되어 왔다. 대체로 용언의 음절수가 많으면, 또 용언이 복합어이면 부정부사 ‘안’, 즉 단형 부정의 결합이 제약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강범모(2014)에서는 음절수 요인뿐 아니라 용언의 어원(고유어, 한자어), ‘하다’가 결합한 용언인지의 여부, 용언의 사용 빈도, 용언의 품사(동사, 형용사) 요인까지 고려하여, 단형 부정 실현을 제약하는 요인들로 언급되어 온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세종 문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살폈는데, 이 요인들 모두가 단형 부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밝히고 있다. 이 논의에서는 부정부사 ‘안’과 용언의 결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 (1) ‘안’ 결합 가능성에 기여하는 요인들의 효력 (강범모 2014:16)

어원: 고유어 > 품사: 동사 > 빈도: 높을수록 >

‘하다’ 여부: ‘하다’ 용언(-) > 음절수: 많을수록(-)

(1)에 제시된 위계는 ‘고유어’, ‘동사’,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의 순서로 ‘안’과 용언이 결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수가 마이너스인 “‘하다’ 용언”과 ‘상대적으로 큰 음절수’는 ‘안’과 용언의 결합을 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범모 2014:16). 그리고 강범모(2014)에서는 이 요인들이 대체로 빈도 요인과 연관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즉 한자어보다 ‘안’과 더 잘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고유어는 빈도 면에서도 한자어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또한 음절수가 적을수록 빈도가 높은 경향이 있고, ‘하다’ 아닌 용언은 ‘하다’ 용언보다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다. 종합해 보면 결국 빈도가 높을수록 ‘안’ 결합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사에 비해 형용사가 단형으로 부정되는 일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경우는 빈도 요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언급 외에는 더 자세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동사보다 형용사에서 단형 부정이 더 제약되는 것, 곧 형용사에서 장형 부정이 더 선호되는 것<sup>1)</sup>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형용사가 단형, 장형으로 부정된 사례들을 모아 들여다봄으로써 형용사가 동사에 비해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한다.

## 2. 연구 자료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2.1. 구어 말뭉치

본 연구에서는 세종 구어 형태분석 말뭉치(80만 어절 규모)를 기본 연구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는 형용사가 동사보다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살피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하다시피 문어보다 구어에서 단형 부정이

1) 본고에서 형용사가 장형 부정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것은, 형용사가 단형 부정보다 장형 부정을 더 선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사에 비하여 형용사가 장형 부정을 더 선호한다는 뜻을 갖는다.

훨씬 활발히 쓰인다. 단형 부정이 활발히 쓰이는 맥락(즉 구어 발화 장면)인 데도 굳이 장형 부정을 선택하여 쓴 예들을 살펴보면, 장형 부정의 사용 동기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문어가 아닌 구어 자료를 본고의 연구 자료로 삼았다.

## 2.2. ‘대화/일상’ 자료

그런데 구어 내부에서도 사용역 특성에 따라 ‘안’과 ‘-지 않-’의 사용 비율이 달라진다. 가령 세종 구어 형태분석 말뭉치 중 ‘연설/강의/강연’으로 분류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안’과 ‘-지 않-’의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안’이 쓰인 예문이 총 1,007개, ‘-지 않-’이 쓰인 예문이 총 884개가 추출된다. 총 1,891개 예문 중 ‘안’이 쓰인 예문은 53.3%, ‘-지 않-’이 쓰인 예문은 46.7%를 차지하여, 구어이지만 일정 부분 문어성을 띠는 ‘연설/강의/강연’ 자료에서는 ‘안’과 ‘-지 않-’의 사용이 비등하게 나타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화/일상’으로 분류된 자료에서는 ‘안’이 쓰인 예문이 총 4,184개, ‘-지 않-’이 쓰인 예문이 총 1,050개가 추출된다. 총 5,234개 예문 중 ‘안’이 쓰인 예문은 79.9%, ‘-지 않-’이 쓰인 예문은 20.1%를 차지하여, 구어성이 강한 ‘대화/일상’ 자료에서는 ‘안’의 사용이 크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구어 내부의 사용역 특성에 따라서도 ‘안’과 ‘-지 않-’의 사용 양상이 달라지므로, 세종 구어 말뭉치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뭉뚱그려 연구 자료로 삼는 것보다는 그 내부에서 사용역 특성을 공유하는 일부 자료만을 연구 자료로 삼는 것이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단형 부정이 많이 쓰이는 ‘대화/일상’ 자료(총 83개 파일, 369,859어절 규모)를 연구 자료로 삼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화/일상’ 자료에 ‘안’이 포함된 사례는 4,184개, ‘-지 않-’이 포함된 사례는 1,050개가 있는데, 부정되는 용언이 동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의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1] ‘대화/일상’ 자료에서 동사, 형용사와 ‘안’, ‘-지 않-’의 결합 빈도

	‘안’	‘-지 않-’	총계
동사	3,833(87.9%)	528(12.1%)	4,361(100%)
형용사	351(40.2%)	522(59.8%)	873(100%)
총계	4,184	1,050	5,234

동사가 ‘안’과 ‘-지 않-’으로 부정된 사례는 총 4,361개가 있었고, 이 중 ‘안’으로 부정된 사례는 87.9%를, ‘-지 않-’으로 부정된 사례는 12.1%를 차지한다. 형용사가 ‘안’과 ‘-지 않-’으로 부정된 사례는 총 873개가 있었고, 이 중 ‘안’으로 부정된 사례는 40.2%, ‘-지 않-’으로 부정된 사례는 59.8%를 차지한다. 동사는 ‘안’으로 부정된 사례가 전체 동사 부정의 88% 정도인 데 비해 형용사는 ‘안’으로 부정된 사례가 전체 형용사 부정의 40% 정도이므로, 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강범모(2014)의 관찰과 마찬가지로 구어의 ‘대화/일상’ 자료에서도 형용사가 단형으로 부정되는 일이 덜 나타남이(즉 형용사가 장형 부정을 선호함) 확인된다.

### 2.3. 평서문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안’ 계열 부정법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쓰이는데, 이 중 의문문에서는 ‘-지 않-’이 쓰이는 상황과 ‘안’이 쓰이는 상황이 대체로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의문문의 경우에는 용언을 ‘안’으로 부정하는지 ‘-지 않-’으로 부정하는지에 따라 꽤 뚜렷하게 기능이 분화되는 양상이 보인다. 한송화(2014:128)에서는 예문 (2)처럼 부정부사 ‘안’을 이용하면, 화자가 어떤 긍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상황을 보니 그 전제가 부정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 전제가 부정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반면에 예문 (3)처럼 부정 보조용언 ‘-지 않-’을 이용하면 화자가 긍정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의를 요청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한송화 2014:133). ‘안’이 쓰일 때 화자는 부정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만((2)의 경우, ‘B가 오늘 강의하러 안 간다’),

‘-지 않-’이 쓰일 때 화자는 긍정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용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3)의 경우, ‘B가 오늘 강의하러 간다’. 이에 따라 각 의문문에 대한 청자의 대답 양상도 (2B), (3B)처럼 달라진다. (2)에서 B는 A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부정문(‘B가 오늘 강의하러 안 간다’)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의 뜻을 담은 ‘응’과 함께 부정문인 ‘안 가’로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에서 B는 A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긍정문(‘B가 오늘 강의하러 간다’)에 동의하기 때문에, 동의의 뜻을 담은 ‘응’과 함께 긍정문인 ‘가’로 대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A: 너 오늘 강의하러 안 가?  
 B: 응, 안 가.
- (3) A: 너 오늘 강의하러 가지 않아?  
 B: 응, 가.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언제 단형 부정을 쓰고 언제 장형 부정을 쓰는지에 대해 대체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평서문에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쓰임은 의문문에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동사보다 형용사에서 장형 부정이 더욱 선호되는 양상이 보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의 연구 자료를 평서문으로 제약하고, 평서문에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분포와 기능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세종 구어 말뭉치의 ‘대화/일상’ 자료 중 평서문에 ‘안’이 포함된 사례는 3,527개, ‘-지 않-’이 포함된 사례는 562개가 있었다. 이 중 부정되는 용언이 동사인 경우와 형용사인 경우의 빈도는 아래와 같다.

[표 2] 평서문에서 동사, 형용사와 ‘안’, ‘-지 않-’의 결합 빈도

	‘안’	‘-지 않-’	총계
동사	3,220(91.7%)	291(8.3%)	3,511(100%)
형용사	307(53.1%)	271(46.9%)	578(100%)
총계	3,527	562	4,089

형용사를 장형으로 부정한 사례가 271개로 단형으로 부정한 사례 307개보다 더 적지만, 단형 부정된 형용사의 유형 빈도는 41인 데 반해 장형 부정된 형용사의 유형 빈도는 812로 나타나 더 많은 형용사가 장형 부정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도 동사의 경우는 장형으로 부정되는 것이 전체 동사 부정의 8.3%를 차지할 뿐인 데 반해 형용사는 장형으로 부정되는 것이 전체 형용사 부정의 46.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형용사가 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형 부정을 선호한다는 본고의 전제가 옳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단형으로 부정된 형용사를 부정의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표 3]과 같다. 또 장형으로 부정된 형용사를 부정의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표 4]와 같다.

[표 3] 단형으로 부정된 형용사

연번	형용사	단형 부정 빈도	연번	형용사	단형 부정 빈도	연번	형용사	단형 부정 빈도
1	좋-	178	15	괜찮-	2	29	부르-	1
2	그렇/그렇-	35	16	궁급하-	2	30	불편하-	1
3	예쁘/이쁘-	12	17	길-	2	31	서운하-	1
4	무섭-	7	18	간간하-	2	32	시끄럽-	1
5	친하-	7	19	나쁘-	2	33	시원하-	1
6	아프-	6	20	멀-	2	34	얌전하-	1
7	고프-	4	21	어렵-	2	35	어리-	1
8	복잡하-	3	22	유명하-	2	36	어색하-	1
9	비싸-	3	23	크-	2	37	웬만하-	1
10	세/쌌-	3	24	필요하-	2	38	진하/쩍하-	1
11	즐겁-	3	25	가깝-	1	39	차갑-	1
12	질-	3	26	달-	1	40	초쾌하-	1
13	춥-	3	27	많-	1	41	피곤하-	1
14	힘들-	3	28	부럽-	1			

[표 4] 장형으로 부정된 형용사

연번	형용사	장형 부정 빈도	연번	형용사	장형 부정 빈도	연번	형용사	장형 부정 빈도
1	그렇/그렇-	35	28	유명하-	2	55	아프-	1
2	싫-	31	29	익숙하-	2	56	약하-	1

2) 이 수치에는 계사형 7개(감동적이-, 구체적이-, 낙관적이-, 낭만적이-, 이성적이-, 폭력적이-, 현실적이-)도 포함되어 있다.

3	같-	25	30	적-	2	57	어리-	1
4	많-	13	31	중요하-	2	58	영원하-	1
5	쉽-	12	32	길-	2	59	예쁘/이쁘-	1
6	나쁘-	10	33	친하-	2	60	예사롭-	1
7	좋-	10	34	크-	2	61	우연하-	1
8	만만하-	9	35	확실하-	2	62	우유부단하-	1
9	없-	9	36	감동적이-	1	63	위험하-	1
10	있-	6	37	강하-	1	64	이성적이-	1
11	심하-	5	38	곤란하-	1	65	작/작-	1
12	아무렇-	5	39	구체적이-	1	66	재미있-	1
13	어렵-	5	40	낙관적이-	1	67	정당하-	1
14	짧-	4	41	낭만적이-	1	68	진지하-	1
15	가난하-	3	42	낮-	1	69	진하/찼하-	1
16	늦-	3	43	느슨하-	1	70	착실하-	1
17	싸-	3	44	능숙하-	1	71	치밀하-	1
18	즐겁-	3	45	다르-	1	72	틀리-	1
19	깊-	2	46	달갑-	1	73	편하-	1
20	높-	2	47	독하-	1	74	폭력적이-	1
21	독특하-	2	48	뛰어나-	1	75	필요하-	1
22	멀-	2	49	맵-	1	76	현실적이-	1
23	반반하-	2	50	불쌍하-	1	77	화려하-	1
24	성실하-	2	51	비싸-	1	78	화목하-	1
25	심상하-	2	52	빨쭙하-	1	79	환하-	1
26	어둡-	2	53	새삼스럽-	1	80	흔하-	1
27	우렁차-	2	54	시답-	1	81	힘들-	1

이 중 ‘안’과 더 자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난 형용사 목록과 ‘-지 않’과 더 자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난 형용사 목록을 나누어서 보이면 아래와 같다.<sup>3)</sup>

[표 5] ‘안’과 더 자주 어울린 형용사

연번	형용사	‘안’ 결합 빈도	참고: ‘-지 않’ 결합 빈도	참고: 전체 출현빈도 <sup>4)</sup>
1	중-	178	10	1,719
2	예쁘/이쁘-	12	1	237
3	무섭-	7		136
4	친하-	7	2	85
5	아프-	6	1	153
6	고프-	4		57

3) ‘그렇-’, ‘즐겁-’, ‘멀-’, ‘유명하-’, ‘크-’, ‘어리-’, ‘진하-’는 ‘안’ 결합 빈도와 ‘-지 않-’ 결합 빈도가 동일하여 [표 5], [표 6]에서는 제외되었다.



7	힘들-	3	1	309
8	비싸-	3	1	131
9	세/쌌-	3		77
10	춥-	3		63
11	복잡하-	3		47
12	길-	3	2	8
13	괜찮-	2		333
14	길-	2		93
15	필요하-	2	1	82
16	궁금하-	2		37
17	간간하-	2		9
18	피곤하-	1		58
19	가깝-	1		52
20	웬만하-	1		42
21	부럽-	1		39
22	시원하-	1		33
23	시끄럽-	1		27
24	어색하-	1		22
25	부르-	1		20
26	불편하-	1		19
27	달-	1		9
28	차갑-	1		9
29	서운하-	1		6
30	얇전하-	1		5
31	초췌하-	1		3

[표 6] ‘-지 않-’과 더 자주 어울린 형용사

연번	형용사	‘-지 않-’ 결합 빈도	참고: ‘안’ 결합 빈도	참고: 전체 출현빈도
1	싫-	31		512
2	같-	25		2,595
3	많-	13	1	751
4	쉽-	12		163
5	나쁘-	10	2	159
6	없-	9		2,368
7	만만하-	9		22
8	있-	6		5,157
9	어렵-	5	2	152
10	심하-	5		104

4) ‘전체 출현 빈도’는 세종 구어 말뭉치의 ‘대화/일상’ 자료 전체에서 해당 용언이 나타난 빈도를 말한다.

11	아무렇-	5		6
12	짧-	4		56
13	늦-	3		96
14	싸-	3		80
15	가난하-	3		32
16	높-	2		100
17	중요하-	2		81
18	확실하-	2		36
19	적-	2		30
20	익숙하-	2		30
21	깊-	2		27
22	독특하-	2		14
23	어둡-	2		9
24	성실하-	2		5
25	우렁차-	2		4
26	반반하-	2		4
27	심상하-	2		2
28	재미있-	1		363
29	다르-	1		245
30	편하-	1		114
31	틀리-	1		112
32	작/작-	1		76
33	낮-	1		57
34	위험하-	1		39
35	강하-	1		37
36	불쌍하-	1		26
37	약하-	1		24
38	독하-	1		20
39	진지하-	1		19
40	곤란하-	1		18
41	맵-	1		13
42	화려하-	1		10
43	빨쫘하-	1		9
44	흔하-	1		7
45	현실적이-	1		7
46	뛰어나-	1		5
47	새삼스럽-	1		5
48	우유부단하-	1		5
49	구체적이-	1		5
50	감동적이-	1		5
51	착실하-	1		4
52	정당하-	1		4

53	치밀하-	1		2
54	폭력적이-	1		2
55	화목하-	1		2
56	이성적이-	1		1
57	시답-	1		1
58	예사롭-	1		1
59	우연하-	1		1
60	영원하-	1		1
61	달갑-	1		1
62	낙관적이-	1		1
63	능숙하-	1		1
64	낭만적이-	1		1
65	환하-	1		1
66	느슨하-	1		1

그런데 형용사이든 동사이든 출현빈도가 낮거나 음절수가 많은 용언이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므로(강범모 2014 참고), 출현빈도도 높고 음절수도 적는데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형용사들에 주목하기로 한다. 출현빈도 15 이상<sup>5)</sup>, 음절수 2 이하인 형용사 중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표 7] ‘-지 않-’과 더 자주 어울린 형용사 중 출현빈도 15 이상, 음절수 2 이하인 형용사

연번	형용사	‘-지 않-’ 결합 빈도	참고: ‘안’ 결합 빈도	참고: 전체 출현빈도
1	싫-	31		512
2	갈-	25		2,595
3	많-	13	1	751
4	쉽-	12		163
5	나쁘-	10	2	159
6	없-	9		2,368
7	있-	6		5,157
8	어렵-	5	2	152

5) ‘출현빈도 15 이상’을 고빈도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임의적인 면이 있지만, ‘대화/일상’ 자료에서 나타난 전체 용언의 빈도를 살폈을 때 대략 4,000종의 용언이 총 95,194회 쓰였는데, 이 중 출현빈도 15 이상 나타난 용언이 총 523개였고, 이들이 총 85,572회 쓰여 전체 용언 출현빈도의 대략 90%를 차지했다. 이 523개 안에 드는 출현빈도 15 이상의 용언이 우리가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용언들이라고 보아 출현빈도 15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9	심하-	5		104
10	짧-	4		56
11	늦-	3		96
12	싸-	3		80
13	높-	2		100
14	적-	2		30
15	깊-	2		27
16	다르-	1		245
17	편하-	1		114
18	틀리-	1		112
19	작/작-	1		76
20	낮-	1		57
21	강하-	1		37
22	약하-	1		24
23	독하-	1		20

3장에서는 먼저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 형용사가 동사에 비해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데, [표 7]에 제시된 형용사가 주된 설명 대상이 될 것이다.

### 3.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차이

#### 3.1. 통사적 차이

##### 3.1.1. 부정의 작용역 차이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은 부정의 작용역(scope)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이 논의되어 왔다(임홍빈 1973, 송석중 1981 등).

가령 단형 부정문인 ‘학생이 다 안 왔다’에서 드러나는 1차적 해석은 “온 학생이 없다”는 것이다. 즉 단형 부정문은 1차적으로 용언인 ‘오다’만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고 부사인 ‘다’는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장형 부정문인 ‘학생이 다 오지 않았다’에서는 학생이 다 오지는 않고 일부만 왔다는 의미가 단형 부정문에 비해 더 두드러진다. 즉 장형 부정

문은 단형 부정문과 달리 용언인 ‘오다’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오다’ 전체를 부정하여, “다 온 것이 아니다(=일부만 왔다)”라는 의미를 1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물론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은 공히 용언만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의미도 드러낼 수 있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의미도 드러낼 수 있다. 다만 단형 부정문보다 장형 부정문에서 ‘용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의미’가 더 잘 드러나며, 따라서 용언만 부정할 때에 비해 용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부정할 때 장형 부정문이 보다 선호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표 7]에 제시된 형용사 중 가장 높은 빈도로 장형 부정과 결합한 형용사는 ‘싫다’와 ‘같다’인데, 이들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고 싶-’, ‘-ㄴ/ㄹ 것 같-’ 형식의 우연적 구성으로 자주 쓰이는 형용사라는 특징이 있다. 즉 ‘싫다’, ‘같다’는 하나의 기능 단위인 우연적 구성의 일부에 해당하는 용언으로서 단독으로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단형 부정보다는 장형 부정과 잘 어울린다.<sup>6)</sup> 이들 형용사가 장형으로 부정되는 일이 많은 이유는 이처럼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작용역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 3.1.2. 용언 뒤에 보조사가 첨가되는 방식의 차이

장형 부정문은 용언 뒤에 보조사가 첨가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가령 ‘아이가 예쁘지는 않다’처럼 용언+어미인 ‘예쁘지’ 뒤에 보조사 ‘는’이

6)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고 싶-’이나 ‘-ㄴ/ㄹ 것 같-’ 전체가 통사원자적으로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안’이 올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음을 지적하셨는데, 본고의 설명과 양립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7) ‘같다’가 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단형으로 부정될 수도 있다. 가령 ‘학생 같다’를 부정하기 위해 ‘학생 안 같다’ 같은 표현이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조사 대상 자료에서는 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이는 ‘같다’이든 그렇지 않은 ‘같다’이든 모두 장형으로 부정된 사례만 보였다(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인 ‘같다’가 장형으로 부정된 사례는 총 18개였고, 그렇지 않은 ‘같다’가 장형으로 부정된 사례는 총 7개였다). 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이는 ‘같다’는 장형으로 부정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 경우가 ‘같다’가 부정되는 사례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이지 않는 ‘같다’도 우연적 구성 속에서 쓰이는 ‘같다’의 부정 양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첨가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예쁜 것은 아니다”와 유사한 의미를 만든다.

이에 비해 단형 부정문 ‘아이가 안 예쁘다’는 용언 뒤에 보조사가 첨가될 자리가 없다. 용언 뒤에 보조사를 첨가하고 싶다면 ‘아이가 안 예쁘기는 하다’처럼 용언 뒤에 명사형 어미 ‘-기’를 결합시키고 그 뒤에 보조사를 첨가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아이가 안 예쁜 것은 사실이다”와 유사한 의미를 만든다.

## 3.2. 의미적 차이

### 3.2.1. 단정적인 부정의 단형 부정과 완곡한 부정의 장형 부정

한송화(2014:123~127)에서는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의미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먼저, 화자는 부정부사 ‘안’을 자신이 수정하고 싶어 하는 정보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청자의 전제나 믿음, 말화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수정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비해 장형 부정은 명제에 대한 태도나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보조사 ‘는’과 함께 부분적인 수정을 하려고 할 때나(예: ‘어렵지는 않다’) ‘보다, 생각하다, 같다’ 등의 사유나 양상동사와 함께 쓰여 완곡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하였다(예: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다’보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가 부정의 강도가 약하며 완곡한 표현이 됨). 즉 화자는 청자의 정보나 전제를 부정하고 이를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정하기 위해서는 단형 부정을 사용하지만, 화자가 청자의 정보나 전제에 대한 부정을 완화하려는 상황에서는 단형 부정에 비해 부정의 강도가 약한 장형 부정을 사용하여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완곡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도 한송화(2014)의 주장, 즉 단형 부정은 단정적인 부정의 의미를 가지며 장형 부정은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동의하는데,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이 어떤 정도부사와 자주 어울리는지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에 대한 방증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정도부사는 (4ㄱ, ㄴ)처럼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을 수도 있고 (4ㄷ, ㄹ)처

럼 부정의 작용역 밖에 있을 수도 있다.((4)는 세종 구어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들로, 해당 사례가 포함된 파일명을 <> 안에 명시하였다. [ ]는 부정의 작용역을 표시한 것인데, 해당 사례가 실제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여 표시하였다.)

- (4) 가. 그때두 물이 [씩 좋]진 않았는데 <6CT\_0030>  
 나. 아니 [그렇게 안 가까워] <6CT\_0039>  
 다. 그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5CT\_0016>  
 르.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5CT\_0015>

이 중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바깥에 있는 (4ㄷ, 르) 같은 사례를 대상으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에서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와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부사 중 어떤 것이 더 자주 어울리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다.<sup>8)</sup> 만약 어떤 부정소 유형과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가 자주 어울린다면, 그만큼 그 부정소는 ‘강도 높은 부정’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화/일상’ 자료에서 장형으로도 부정되고 단형으로도 부정되는 형용사가 쓰인 부정문 중 부정의 작용역 바깥에서 정도부사가 쓰인 사례를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단형 부정의 경우 ‘그렇게, 너무, 더, 되게, 많이, 몹시, 상당히, 아주, 어찌나, 열라, 영, 절대, 정, 제일, 진짜, 하나도’ 등과 같이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와 함께 어울린 예가 44개, ‘조금, 좀’과 같이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부사가 쓰인 예가 15개였다.<sup>9)</sup> 장형 부정의 경우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가 쓰인 예는 1개,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부사가 쓰인 예는 4개였다.<sup>10)</sup>

8) (4가, 나)처럼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정도부사가 부정소와 무관하게 용언만을 꾸미는 경우이므로 부정소의 의미를 파악할 때 참고할 수 없다.

9) 단형 부정이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와 어울린 예에는 ‘그래 가지구 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5CT\_0015>’ 같은 것이 있었고,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부사와 어울린 예에는 ‘가끔 잘 안 좋은 아이들 있잖아,<5CT\_0014>’ 같은 것이 있었다.

10) 3.1.1절에서 언급했듯이 장형 부정문에서는 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

다시 말해, 단형으로 부정된 서술어에 대해 그 부정의 정도성을 강조한 사례는 44개(59개 사례 중 74.6%)가 되는 반면에, 장형으로 부정된 서술어에 대해 그 부정의 정도성을 강조한 사례는 1개(5개 사례 중 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절대빈도로 보나 비율로 보나 단형 부정에서 부정의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가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이는 단형 부정이 장형 부정에 비해 단정적인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주장에 대한 방증 근거가 될 수 있다.

### 3.2.2. 의미 차이의 동기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에 의미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본고에서는 장형 부정이 3.1.1~3.1.2절에서 언급한 통사적 특성을 갖는 것이 장형 부정에서 완곡한 부정의 의미가 드러나게 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먼저 3.1.1절에서 언급한, 장형 부정문에서 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경향성이 장형 부정의 완곡한 부정 의미에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부사 중에서도 ‘아주’, ‘그렇게’<sup>11)</sup> 같은 정도부사는 정도성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면 역으로 부정의 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령 긍정문인 (5ㄱ)에서 ‘그렇게’는 예쁜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장형 부정문에서 (5ㄴ)처럼 ‘그렇게’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포함되면 “아주 예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 정도부사가 없는 ‘예쁘지 않다’보다 부정의 정도가 약화된다.<sup>12)</sup> 이는 단형 부정문에서 ‘아주’, ‘그렇게’ 같은 부사가 쓰이면 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바깥에 있는 것으

---

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가 이처럼 매우 적게 나타났다. 장형 부정이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와 어울린 것으로 분석 가능한 예로 ‘그리구 별로 정말 이쁘지도 않았구.<5CT\_0015>’가 있었고, 정도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부사와 어울린 예에는 ‘그까 다 좋 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6CT\_0058>’ 같은 것이 있었다.

- 11) ‘그렇게’는 “그 정도로”로 해석될 수도 있고 “아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주”로 해석되는 경우만을 고려한다.
- 12) (5ㄴ)에서 ‘그렇게’는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주목한다. 그리고 (5ㄷ)에서는 ‘그렇게’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가 어려운 데 비해 (5ㄴ)에서는 그런 해석이 훨씬 수월함에 주목한다.



로 이해되어서 (5ㄷ)과 같이 부정의 정도를 강화하게 되는 것과 대비된다.([ ]는 부정의 작용역을 표시한 것이다.)

(5) ㄱ. 진이 동생이 그렇게(=아주) 예쁘대.

나. 진이 동생은 [그렇게 예쁘]지 않다. (=“아주 예쁜 것은 아니다”<sup>13)</sup>)

ㄷ. 진이 동생이 그렇게 안 [예쁘대]. (=“안 예쁜 정도가 심하다”)

요컨대 장형 부정문은 정도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정도부사와 함께 쓰일 때 그 정도부사를 부정의 작용역 내에 포함함으로써 부정의 정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며, 이런 일은 단형 부정문에서는 덜 일어난다. 이처럼 부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부정의 정도를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장형 부정문이 자주 쓰이다 보면, 장형 부정문 자체에 완곡한 부정이라는 의미가 관습화될 수 있다.

또한 3.1.2절에서 언급한, 용언 뒤에 보조사가 첨가되는 방식의 차이 역시 장형 부정의 완곡한 부정 의미에 기여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3.1.2절에서는 장형 부정문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아이가 예쁘지는 않다’는 “아이가 예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단형 부정문에 보조사 ‘는’이 결합한 ‘아이가 안 예쁘기는 하다’는 “아이가 안 예쁜 것은 사실이다”라는 의미를 가짐을 언급하였다. 전자의 장형 부정문에서는 보조사 ‘는’의 작용역 바깥에 부정소가 있고, 후자의 단형 부정문에서는 보조사 ‘는’의 작용역 안에 부정소가 있다. 이에 따라 전자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예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갖고, 후자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안 예쁨’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이때 전자는 대상에 대해 ‘이 대상은 어떠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고, 대신에 ‘이 대상은 어떠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직접적인 평가를 주저하는 의미를 전달한다. 이에 비해 후자는 ‘이 대상은 어떠하다’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의미를 갖는다. 후자의 단형 부정문에 비해 전자의 장형 부정문이 갖는 의미가 완

13)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진이 동생은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처럼 ‘는’이 들어가야 “아주 예쁜 것은 아니다”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으나, ‘그렇게 예쁘지’를 휴지 없이 발음하면 ‘는’이 없어도 동일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곡함은 분명할 것이며, 이런 효과 때문에 완곡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장형 부정문과 보조사 ‘는’을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보조사라는 수단을 이용해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장형 부정문이 자주 쓰이다 보면, 장형 부정문 자체에 완곡한 부정이라는 의미가 관습화될 수 있다.

#### 4. 형용사가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상황과 그 동기

4장에서는 형용사가 특히 어떤 상황에서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살핀다. 이때 3장에서 논의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사보다 형용사가 장형 부정을 선호하게 되는 동기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4.1.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상황

부정 현상과 관련하여 부사를 세 종류로 나누어 본다면, 늘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부사, 늘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부사,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사로 나눌 수 있다. 가령 (6)에서 보인 ‘다행히’ 같은 부사는 늘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6ㄱ, ㄴ) 모두에서 ‘다행히’라는 화자의 태도는 부정되지 않는다(서상규 1984 참고).

(6) ㄱ. 다행히 불이 금방 안 꺼졌다.

ㄴ. 다행히 불이 금방 꺼지지 않았다. (서상규 1984:13)

한편 (7)에서 보인 ‘빨리’ 같은 부사는 늘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 즉 (7ㄱ, ㄴ) 모두 순이가 ‘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달렸음을 의미한다(서상규 1984 참고).

(7) ㄱ. 순이는 빨리 안 달렸다.

ㄴ. 순이는 빨리 달리지 않았다. (서상규 1984:22)

이에 비해 (8)의 시간부사 ‘내일’이나 (9)의 장소부사어 ‘집에서’, (10)의 수량부사 ‘다’, (11)의 정도부사 ‘그렇게’는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8)이 “우리는 내일 소풍을 안 가고 모래 소풍을 간다”라는 뜻이라면 시간부사 ‘내일’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 것이고, “우리는 내일 소풍을 안 가고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라면 시간부사 ‘내일’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이 두 해석 모두가 가능하다. 또 (9)이 “그이는 집에서 책을 안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라는 뜻이라면 장소부사어 ‘집에서’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 것이고, “그이는 집에서 책을 안 읽고 잠을 잤다”라는 뜻이라면 장소부사어 ‘집에서’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데, 이 두 해석 모두가 가능하다(이상 서상규 1984 참고). (10)의 ‘다’와 (11)의 ‘그렇게’ 역시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에 대해서는 3.1.1절에서, ‘그렇게’에 대해서는 예문 (5)에서 이미 설명되었다.

(8) ㄱ. 우리는 내일 소풍을 안 간다.

ㄴ. 우리는 내일 소풍을 가지 않는다. (서상규 1984:28)

(9) ㄱ. 그이는 집에서 책을 안 읽었다.

ㄴ. 그이는 집에서 책을 읽지 않았다. (서상규 1984:27)

(10) ㄱ. 학생이 다 안 왔다.

ㄴ. 학생이 다 오지 않았다.

(11) ㄱ. 진이 동생이 그렇게 안 예쁘대.

ㄴ. 진이 동생은 그렇게 예쁘지 않다.

본고는 이 중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사에 주목한다. 어떤 부사들이 그러한 부사에 해당되는지를 망라하는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두고, 서상규(1984)에서 그러한 부사로서 언급된 시간부사와 장소부사, 송석중(1981) 등에서 언급된 수량부사,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정도부사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중 시간부사, 장소부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

함되든 그렇지 않든 명제 의미에서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앞서 (8ㄱ)이 “우리는 내일 소풍을 안 가고 모레 소풍을 간다”라는 뜻이라면 시간부사 ‘내일’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 것이고, “우리는 내일 소풍을 안 가고 공부를 한다”라는 뜻이라면 시간부사 ‘내일’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둘 중 어떤 뜻이든 ‘우리가 내일 소풍을 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가 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9ㄱ) 역시 ‘집에서’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든 그렇지 않든, ‘그이가 집에서 책을 읽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한편 수량부사, 정도부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명제 의미가 달라진다. (10)에서 수량부사 ‘다’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면 “학생이 다 온 것은 아니고 일부만 왔다”라는 뜻이 되지만, ‘다’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온 학생이 없다”라는 뜻이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또 (11)에서 정도부사 ‘그렇게’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면 “진이 동생은 아주 예쁜 정도는 아니다”라는 뜻이 되지만, ‘그렇게’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진이 동생은 예쁘지 않은 정도가 심하다”라는 뜻이 되어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수량부사, 정도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을 사용할 때는 본래 화자가 의도한 의미가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수량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은 중의성을 해소할 수단을 여럿 가지고 있다. 가령 예문 (10)에서 ‘다’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즉 “학생이 일부만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하려면 ‘학생이 다는 안 왔다’처럼 ‘다’ 뒤에 보조사 ‘는’을 붙여 ‘다’에 대조초점이 놓이게 하면 된다. 반대로 ‘다’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즉 “온 학생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하려면 ‘학생이 아무도/한 명도 안 왔다’처럼 어휘적인 수단을 이용하면 된다.

이에 비해 정도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은 중의성을 해소할 수단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수량부사 ‘다’의 경우와 달리 정도부사 ‘아주’나 ‘그렇게’ 뒤에는 보조사 ‘는’이 잘 놓이지 않고, 정도부사를 ‘아무’ 같은 어휘적인 수단으로 대체할 수도 없으며, 다만 ‘진이 동생은 하나도 안 예쁘대’에서처럼

‘하나도’ 등의 부사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부사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어 단순히 대체되는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형 부정-장형 부정의 구별이, 정도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의 중의성을 얼마간 해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화/일상’ 자료의 부정 평서문에서 형용사와 정도부사 ‘그렇게, 너무, 되게, 많이, 아주’<sup>14)</sup>가 어울린 사례가 총 54개(장형 부정문 28개, 단형 부정문 26개) 있었는데,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로는 장형 부정문 28개, 단형 부정문 4개<sup>15)</sup>가 있었고,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예로는 단형 부정문 22개가 있었다. 이는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단형 부정문을 사용하고,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장형 부정문을 사용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결과가 보여주듯이, 정도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는 정도부사와 부정 작용역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하여 3.1.1절에서 언급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작용역 해석 경향 차이를 적극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도부사라 하더라도 ‘별로’<sup>16)</sup> 같은 것은 해석의 중의성이 생기지 않는데, ‘별로’는 늘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된다. 가령 (12ㄱ, ㄴ)은 공히 “그곳이 특별히 먼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 (12) ㄱ. 거기 별로 멀지 않아.  
 ㄴ. 거기 별로 안 멀어.

‘별로’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으므로 (12ㄱ)처럼 장형 부정문 속에서 쓰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지만, 해석의 중의성이 없으므로 (12ㄴ)처럼

14) ‘대화/일상’ 자료의 부정 평서문에서 형용사와 어울리며 나타난 정도부사 중에서, 실제로 부정 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부정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정도부사로 이 다섯 개가 발견되었다.

15)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단형 부정문의 사례로는 ‘그렇게 안 힘들 텐데.<5CT\_0016>’, ‘아니 그렇게 안 가까워.<6CT\_0039>’ 같은 것이 있었다.

16) ‘별로’는 축어적으로 ‘특별히’의 뜻을 지니고 있어 정도성을 강조하는 정도부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정도부사와 달리 부정문과 자주 어울려 쓰이다 보니 정도부사인 동시에 부정극어의 일종이 되었다는 특수성도 갖는다.

럼 단형 부정문 속에서 쓰이는 일도 빈번히 나타난다. 실제로 ‘대화/일상’ 자료의 부정 평서문에서 형용사와 ‘별로’가 어울린 사례가 총 72개 있었는데, 그 중 장형 부정문의 예는 22개, 단형 부정문의 예는 50개로, 오히려 단형 부정문의 예가 더 많았다. 이처럼 부정문에 정도부사가 쓰인 경우라도, 중의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단형 부정이 더 선호되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말차례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화·청자 사이에 공유된 지식이 많은 상태에서 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략도 많고 간편한 발화를 추구하는 일상대화 맥락에서, 부정을 할 때에도 가능하면 더 간단한 형식인 단형 부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별로’와 마찬가지로 정도부사 외의 다른 부사들도 단형 부정-장형 부정을 구별하는 것이 중의성 해소를 위한 중요 수단이 아니므로, 일상대화 맥락에서 단형 부정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이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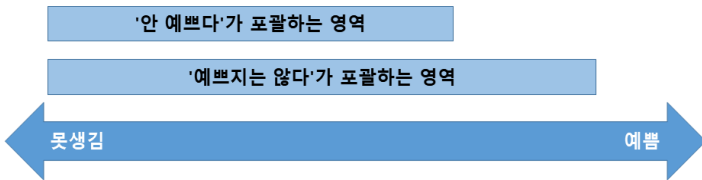
방금 본 ‘별로’처럼 중의성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정도부사는 단형 부정-장형 부정의 구별을 중의성 해소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런데 정도부사는 의미상 정도성을 띠는 용언, 즉 형용사와 잘 어울린다. 결국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구별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형용사와 장형 부정이 어울리는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서술어가 동사일 때에는 부사와 관련된 중의성 해소 때문에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을 구별해서 써야 할 동기가 생기는 경우가 형용사보다 드물다. 따라서 일상대화 장면에서 동사를 부정해야 할 때에는 굳이 장형 부정을 쓰지 않고, 장형 부정보다 형식적으로 간단한 단형 부정을 극히 선호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4.2.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상황

3.2절에서는 단형 부정이 단정적인 부정의 의미를, 장형 부정이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지님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런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의미

차이가 문장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서술어가 동사일 때보다 형용사일 때 두드러지는 듯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사와 형용사의 차이 중 하나는 동사는 정도성 개념과 무관한 경우가 많지만 형용사는 정도성 개념과 유관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사 ‘먹다’를 부정하면 단순히 먹는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낼 뿐 정도성 개념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형용사 ‘예쁘다’는 못생김과 예쁨을 양극단으로 하는 정도성이 있는 척도상에서 규정되는 개념이고, 이를 부정하면 대상이 그 척도상에서 ‘예쁨’을 제외한 범위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음을 가리키게 되는데, 단정적으로 부정하는지 완곡하게 부정하는지에 따라 대상의 상태가 척도 위의 어느 위치에 놓인 것으로 해석되는 지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아이가 안 예뻐’와 장형 부정문에 보조사 ‘는’을 첨가한 ‘아이가 예쁘진 않아’가, 못생김과 예쁨을 양극단으로 하는 척도상에서 어느 지점을 가리키고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3.2절에서 주장했듯 단형 부정문 ‘아이가 안 예뻐’는 아이의 속성에 대해 직접적, 단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느낌을 주며, 따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예쁨’이라는 지점에서 꽤 떨어져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한다. 이에 비해 장형 부정문에 보조사 ‘는’까지 쓰인 ‘아이가 예쁘진 않아’는 대상에 대해 ‘이 대상은 어떠한가’라고 직접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은 어떠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평가를 주저하면서 다만 대상의 속성이 ‘예쁨’이라는 지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결국 ‘안 예쁘다’보다 ‘예쁘지는 않다’가 포괄할 수 있는 개념 영역이 좀 더 넓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안 예쁘다’와 ‘예쁘지는 않다’가 포괄하는 개념 영역

이처럼 형용사가 부정될 때, 장형 부정은 척도의 많은 부분을 개념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하지만 단형 부정은 그렇지 않다는 차이를 드러낸다.

그런데 정연주 외(2015:131)에서 지적했듯이 형용사는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부류로서 어떤 대상의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가령 어떤 대상에 대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같은 평가를 내릴 때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 평가는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는 늘 타인에 의한 반론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되도록이면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견해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견해가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도록, 단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 정연주 외(2015:131)의 주장이다. 즉 형용사의 부정형으로 대상의 속성에 대해 언급할 때, 해석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단형 부정(예: ‘안 예쁘다’)보다 해석의 범위가 넓고 완곡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형 부정(예: ‘예쁘지(는) 않다’)을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만약 형용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화자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인다면, 완곡어법을 써야 할 필요성은 줄어들 것이다. 자신의 내적인 상태는 자신만 아는 것이므로 타인의 반대 가능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별로 없으며 단정적인 표현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정연주 외 2015:131~132). ‘아프다, 시리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춥다’ 등의 감각형용사, ‘(기분이) 좋다, 서운하다, 무섭다, 즐겁다’ 등의 감정형용사가 그런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로 [표 5]에서 제시했던 단형 부정과 더 자주 어울린 형용사 31개 중 40% 이상이 감각형용사, 감정형용사에 해당한다. ‘좋-', ‘무섭-', ‘아프-', ‘고프-', ‘힘들-', ‘춥-', ‘필요하-', ‘궁금하-', ‘피곤하-', ‘부럽-', ‘어색하-', ‘부르-', ‘서운하-' 같은 것이 그 예가 된다. 특히 ‘안’ 결합 빈도수 3 이상인 형용사 12개 중 6개가 감각형용사, 감정형용사에 해당하여, 이들 형용사가 ‘안’과 결합한 형용사의 사례에서 양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표 6]에서 보인 장형 부정과 더 자주 어울린 형용사 66개 중에는 감각형용사, 감정형용사가 적은 편인데, ‘불쌍하-', ‘곤란하-', ‘뻔뻔하-', ‘달갑-



정도가 그 예가 된다. 참고로 ‘-지 않-’ 결합 빈도수 3 이상인 형용사 15개 중에서는 감각형용사, 감정형용사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이 외의 형용사는 대개 대상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상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쓰이는 것들이다. ‘많-’, ‘쉽-’, ‘나쁘-’, ‘어렵-’, ‘심하-’, ‘짧-’, ‘늦-’, ‘싸-’, ‘높-’, ‘적-’, ‘깊-’, ‘편하-’, ‘작-’, ‘낮-’, ‘강하-’, ‘약하-’, ‘독하-’ 등이 그 예이며, 장형 부정과 자주 어울린 형용사의 대부분이 이러한 형용사에 해당한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분명하고 단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형 부정을 선호할 수 있다는 본고의 가설을 지지해 준다.

가령 아래 (13ㄱ)과 같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어떤 제도에 대해 짐작하며 평가할 때, (13ㄴ)과 같이 어떤 현상에 대해 정확한 조사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일반화할 때, 화자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자신의 견해가 가능한 한 넓게 해석되게 하여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기 쉽다. 그럴 때 ‘좋다’나 ‘안 나쁘다’ 같은 표현을 쓰는 대신 ‘나쁘지 않다’라는 표현을 선호하게 되고(13ㄱ), ‘적다’나 ‘안 많다’ 같은 표현을 쓰는 대신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13ㄴ).

- (13) ㄱ. (기여입학제에 관한 이야기 중) 하라 그래. 그럼 그만큼 또 등록금 계속  
동결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 다른 애들이 보충해 주니까. 여러 가지  
루 나쁘진 않은 거 같애. <6CT\_0031>
- ㄴ. 둘 다 뭐 엄청 좋아하면서 사귀는 커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애.  
<7CT\_0023>

한편 동사는 행위를 서술하기 위해 쓰이며, 어떤 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주관성이 크게 개입하지 않으므로 완곡어법의 필요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앞서도 언급했듯 많은 형용사가 의미적으로 정도성을 가지며 [그림 1]에서 보인 척도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사는 척도 개념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화자는 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자신의 발언이 척도상에서 보다 넓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하기 위하여 장형 부정 형식을 사용해야 할 동기를 갖는 일이 드물다. 결국 동사를 부정할 때에는 형용사를 부정할 때보다 단형 부정과 장형 부

정을 구별하여 사용할 동기가 약해지며, 따라서 경제적이고 간결한 표현법을 선호하는 일상대화 장면에서 동사를 부정할 때 단형 부정을 극히 선호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단형 부정은 직접적이고 단정적인 부정의 의미를, 장형 부정은 척도상에서 단형 부정보다 더 넓은 개념 영역을 포괄하는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를 내릴 때 쓰이는 많은 형용사들을 부정할 때,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가 분명하고 단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조금 더 논의를 추가하자면 완곡어법은 대상의 속성에 대해 단정하지 않음으로써 오류 및 반론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에서도 요구되지만,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어 체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감추어 겸손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에서도 요구된다.

- (14) ㄱ. 암튼 경험이 없어서, 내가 경험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다. <GCT\_0025>  
 ㄴ. 그래서 내가 돈이 돈이 바로 많지 않으니가, <GCT\_0027>  
 ㄷ. 동생을 가르쳐 봤더니 쉽지가 않더라. <GCT\_0030>  
 ㄹ. 나도 신고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GCT\_0017>

(14)의 ‘많지 않다’, ‘쉽지 않다’는 모두 화자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할 때 쓰인 것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대신 ‘경험이 적다’, ‘돈이 적다’, ‘어떤 일이 어렵다’라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피하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완곡적으로 반의어와 장형 부정 형식을 사용한 예로 볼 수 있다. 가령 (14-ㄱ)에서 화자가 처음에는 ‘경험이 없다’고 말했다가 ‘경험이 많지 않다’라고 정정한 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단정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일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일에 능숙하지/익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감추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15) 근데 의외루 나 취직을 되게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  
<6CT\_0031>

(15)의 ‘어렵지 않다’도 화자 자신의 경험에 대해 언급할 때 쓰인 것으로 자신과 관련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진술의 오류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와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인다. ‘나에게는 취직이 쉽다’라고 자신의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완곡적으로 반의어와 장형 부정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겸손한 태도를 드러낸 예로 볼 여지가 있다.

#### 4.3. 척도의 중간 부분을 언급하는 상황

형용사는 ‘크다-작다’, ‘높다-낮다’, ‘빠르다-느리다’ 등과 같이 정도반의어를 갖는 경우가 많고, 정도반의 관계에 있는 두 형용사는 [그림 1]에서 보인 것과 같은 척도상에서 양극단에 놓인다. 이때 척도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고자 할 때에는 그 척도의 양극단에 있는 형용사를 모두 부정해야 하며, 둘 이상을 부정하기 위하여 보조사 ‘도’가 쓰인다. 그리고 보조사를 덧붙이기 위해 (16)처럼 장형 부정 형식을 이용하게 된다.

(16) ㄱ.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넉넉하게 살 거 같고, <6CT\_0034>  
 ㄴ. 너무 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어둡지도 않기 때문에, <7CT\_0019>

앞선 소절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형용사가 의미적으로 정도성을 가지며 척도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동사는 척도 개념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척도의 중간 부분을 가리키기 위해 장형 부정 형식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하다. 결국 동사는 형용사보다 장형 부정 형식을 이용해야 할 동기를 갖는 경우가 적어진다.

#### 4.4. 상보반의어가 존재하는 상황

3.1.1절에서 언급했듯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은 부정의 작용역 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단형 부정은 용언만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장형 부정은 용언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부정의 작용역에 더 잘 포함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용사 중에는 상보반의어를 갖는 것들이 종종 있다. ‘있다-없다’, ‘같다-다르다’, ‘맞다-틀리다’, ‘확실하다-불확실하다’, ‘적절하다-부적절하다’, ‘가능하다-불가능하다’, ‘정확하다-부정확하다’ 등이 그 예가 된다. 가령 ‘가능하다’의 경우 어떤 상황은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에 속하므로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는 상보반의 관계에 있다.

이처럼 상보반의어를 갖는 형용사를 단형으로 부정하면, 후행하는 용언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면서 의미상으로는 그 형용사의 상보반의어와 다르지 않게 된다. 가령 ‘(물건이) 있다’를 단형으로 부정한 ‘안 있다’에서 ‘안’은 후행하는 용언인 ‘있다’만을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경향이 있으며, ‘있다’가 부정되면 곧 ‘없다’라는 뜻이 되므로, ‘안 있다’와 ‘없다’는 별다르지 않은 뜻을 갖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있다’를 단형으로 부정한 ‘(물건이) 안 있다’ 같은 형식은 실제로 쓰이지 않는다. 의미상으로 유사한 다른 단어의 존재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임에도 실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상을 저지 현상이라 하는데, ‘안 있다’가 쓰이지 않는 이유도 이미 존재하는 의미가 매우 유사한 단어 ‘없다’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저지 현상을 다룬 이광호(2009:5.3.2절)에서는 어휘부 내에 확고하게 표상된 단어가 있으면 그 인출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져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가 활성화되어 인출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는데, ‘없다’는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이므로 ‘안 있다’라는 대체 형식이 활성화될 기회가 없다시피 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앞서 상보반의어를 갖는 형용사의 예로 들었던 단어들의 경우에도, ‘(무엇이 무엇하고) 안 같다’, ‘(무엇이 무엇하고) 안 다르다’, ‘(이 답은) 안 맞다’,

17) 특히 ‘없다’는 ‘전혀’와 같은 부정극어와 어울린다는 점에서 ‘안’ 부정법, ‘못’ 부정법 등 통사적 부정법과 공통점을 가지며, 이 때문에 문법적 부정법 논의에서 ‘특수 어휘에 의한 부정법’의 사례로 다루어지고 있다. ‘없다’는 ‘있다’의 상보반의어일 뿐이지만 사용빈도가 매우 높아 ‘안 있다’ 같은 통사적 부정법을 저지하며, 이에 따라 ‘없다’가 부정극어와 어울리는 등, ‘안 있다’를 대신하여 통사적 부정법의 특성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답은) 안 틀리다’, ‘(그 일은) 안 가능하다’ 같은 단형 부정 표현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썩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단형으로 부정된 형용사를 나열한 [표 3]에서도 이들 형식은 발견되지 않았고, [표 3]의 형용사 중 상보반의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용사는 ‘필요하다’ 하나에 불과하다.

‘필요하다’는 ‘불필요하다’와 상보반의 관계를 이루지만 단형으로 부정된 사례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고의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격식적인 장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이고 일상대화 장면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으므로(‘대화/일상’ 자료에서 ‘불필요하-’의 출현 빈도는 1에 그쳤다) ‘불필요하다’ 대신 단형 부정 형식인 ‘안 필요하다’가 활성화되어 인출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sup>18)</sup>

요컨대 형용사 중에는 상보반의어를 갖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 형용사를 단형으로 부정하는 것과 그 형용사의 상보반의어는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상보반의어의 존재가 형용사의 단형 부정을 저지하여 형용사의 단형 부정에서 제약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장형 부정문은 용언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여주므로 형용사의 장형 부정 형식은 그 형용사의 상보반의어와 동의 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저지 관계에 놓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3.2절에서 논의했듯 장형 부정은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가지며, 이 점에서도 상보반의어와 동의적이지 않다. 따라서 상보반의어가 존재하는 형용사에도 장형 부정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

실제로 [표 7]에서 제시된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형용사 중 ‘없다’, ‘있다’, ‘다르다’, ‘틀리다’는 상보반의어를 갖는 형용사이다. 이 형용사들이 단형으로 부정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데 비해 장형으로 부정된 사례는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없지 않다’, ‘다르지 않다’, ‘틀리지 않다’는 ‘있다’, ‘같다’, ‘맞다’에 비해 의견을 단정 짓지 않고 완곡하게 제시하는 느낌을 전달하며 일상언어에서 자주 쓰인다.

18) 이에 비해 ‘불가능하-’는 7회 나타났고, ‘불가능하-’가 종종 쓰이므로 ‘안 가능하다’ 형식이 더 잘 저지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7) 가. 그 일은 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  
 나. 제 의견도 선생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분석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형용사 중에는 상보반의어를 갖는 것들이 종종 있고, 그 형용사를 단형으로 부정하는 것과 상보반의어는 매우 유사한 의미를 가지므로 상보반의어의 저지에 의해 단형 부정이 제약되지만, 장형 부정은 부정의 작용역이 넓다는 점과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보반의어와 다르고, 따라서 상보반의어가 장형 부정을 저지하지 않아 형용사와 장형 부정의 결합에서는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형용사의 부정에서 단형 부정이 제약되고 장형 부정이 선호되는 한 동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동사에서는 왜 단형 부정이 제약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동사가 나타내는 사태는 보통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정지’의 상태에 대해 특별한 명칭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므로, 동사의 단형 부정을 저지할 만한 단어는 보통의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령 ‘보다’라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안 보다’나 ‘보지 않다’라고 표현해야 하며, 이 표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찾기는 어렵다.

반면에 어떤 대상에는 특정 형용사가 나타내는 속성이 단순히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 아니라, 해당 속성이 있거나 그 속성과 반대에 있는 다른 속성이 있거나 그 중간 즈음의 속성이 있다. 그러므로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것과 반대쪽 극단에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그런 다른 극단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단형 부정을 저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앞서 형용사 ‘있다’는 ‘없다’라는 상보반의어의 존재 때문에 단형으로 부정되지 않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해 “머무르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로서의 ‘있다’는 단형으로 부정될 수 있다(예: 나는 여기에 안 있을래). 동사로서의 ‘있다’는 반의어를 갖지 않으며(“머무르는 일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는 별도의 단어가 존재할 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단형으로 부정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사례 역시 의미적으로 동사에 비해 형용사가 반의어

를 갖기 쉽다는 사실이 동사보다 형용사에서 단형 부정이 제약되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sup>19)</sup>

## 5. 결론

한국어에서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실현 양상은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 온 주제이지만, 동사와 형용사가 부정의 양상에서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한 경우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부정도 하나의 의미 작용이므로, 동사에 작용하는지 형용사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사의 부정 양상과 형용사의 부정 양상에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사에 비해 형용사에서 장형 부정이 더 선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 것이었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형용사는 의미상 정도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정도부사와 잘 어울린다. 그런데 정도부사가 부정문에서 쓰일 때에는 그것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의미상 중의성이 발생하고, 이때 단형 부정-장형 부정의 구별이 중의성 해소를 위한 중요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결국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 단형 부정과 장형 부정의 구별이 중요해지는 경우가 생기고, 정도부사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19) 동사보다 형용사에서 장형 부정이 더 많이 쓰이는 데 기여하는 요인은 이 외에도 더 찾아볼 수 있다. 가령 'X하-' 형의 동사에서는 '하-' 분리가 쉬워 'X'와 '하-'를 분리하고 음절수가 적은 '하-'를 단형으로 부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예: 공부하다 → 공부 안 하다), 'X하-' 형의 형용사에서는 '하-' 분리가 어렵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음절수가 많은 'X하-' 전체를 부정할 때 장형 부정 형식을 취하기가 쉬워진다. 또 형용사 중에는 '시답다(→시답지 않다)', '심상하다(→심상치 않다)'처럼 거의 장형 부정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들도 있다. 장형 부정이 활발하게 쓰이던 시기에 장형 부정 형식으로 자주 쓰이던 형용사들이, 이후에 다시금 단형 부정 형식이 활발히 쓰이는 경향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습관대로 장형 부정 형식을 유지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형용사의 부정형은 의미적으로 단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하나의 어휘처럼 취급되기 쉽다는 점(정연주 외 2015:124 참고)이 이전 시기 표현법이 굳어진 체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형용사 어간의 음절수가 3 이상인 경우와 주로 관련되기 때문에 본문에서 논하지 않았지만, 동사보다 형용사에서 장형 부정이 더 많이 쓰이는 데 기여하는 요인이 될 만하다.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 형용사를 부정할 때 장형 부정의 사용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형용사는 어떤 대상의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주관적인 평가는 늘 타인에 의한 반론의 여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화자는 되도록이면 자신의 견해가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도록, 단정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기 쉽다. 그런데 단형 부정은 단정적인 부정, 장형 부정은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용사를 부정할 때 완곡한 부정 의미를 갖는 장형 부정을 선호하는 양상이 보이게 된다.

형용사는 정도반의어를 갖는 경우가 많고, 정도반의 관계에 있는 두 형용사는 척도의 양극단에 놓인다. 이 척도의 중간 부분을 가리킬 때에는 척도의 양극단에 있는 형용사를 모두 부정해야 하며, 이때 ‘길지도 짧지도 않다’처럼 보조사 ‘도’와 함께 장형 부정 형식을 이용하게 된다.

형용사 중에는 상보반의어를 갖는 것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상보반의어를 갖는 형용사를 단형으로 부정하면, 후행하는 용언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면서 의미상 그 형용사의 상보반의어와 다르지 않게 되고, 이에 상보반의어의 존재가 형용사의 단형 부정 형식을 저지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비해 장형 부정은 부정의 작용역이 넓은 경향이 있다는 점과 완곡한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보반의어와 다르고, 따라서 상보반의어가 장형 부정을 저지하지 않아 형용사와 장형 부정의 결합에서는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형용사의 부정에서 단형 부정이 제약되고 장형 부정이 선호되는 한 동기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범모(2014), “부정 요소 ‘안’과 용언의 결합 제약에 대한 통계적 분석”, 『언어』 39-1, 한국언어학회, 1-25.  
 구종남(1993), “용언의 단형부정 제약과 형태, 의미, 화용론”, 『한국언어문학』 31, 한국언어학회, 1-21.



- 서상규(1984),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해석”, 『한글』 186, 한글학회, 73-114.
- 송석중(1981), “한국말의 부정의 범위”, 『한글』 173,174, 한글학회, 327-352.
- 이광호(2009), 『국어 파생 접사의 생산성과 저지에 대한 계량적 연구』, 국어학회.
- 이상화(1989), “현대 국어의 부정적인 표현의미 구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1973), “부정의 양상”, 『論文集』 5,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115-140.
- 정연주·정경재·홍중선(2015), “20세기 전기 구어 자료에서의 ‘안’ 부정법”, 『어문논집』 75, 민족어문학회, 109-145.
- 한송화(2014), “구어 언어자료에 나타난 장형부정과 단형부정의 사용과 부정의 담화 기능: 단순부정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60, 한국문학언어학회, 115-142.

정연주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05240)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선사현대아파트 110동 1206호

전자우편: jeongyj01@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7. 08. 20.

원고 수정일: 2017. 09. 18.

게재 확정일: 2017. 09. 20.